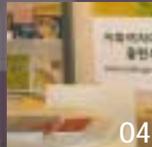




이화소식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2005년 11월 14일 제 72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9)



이화·신세계관 완공

한국 경제 이끌어갈 여성경영인 양성의 거점으로

경영대학 전용건물인 이화·신세계관이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0월 27일(오전 10시 30분), 이화·신세계관 1층 대강의실에서 봉헌식(사진)을 가졌다.

(주)신세계가 건립해 본교에 기증한 이화·신세계관의 완공으로 본교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여성 경영인 양성의 거점을 마련했으며, 경영대학은 1964년 법정대학 경영학과로 출범한 이래 40여년 만에 전용건물을 갖추고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신인령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여성 전문경영인 양성에 큰 뜻을 가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쾌척으로 경영학도의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이 마련됐다”고 치하한 뒤 귀중한 공간을 마련해준 이명희 (주)신세계 회장과, 설계를 맡은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이사, 시공을 담당한 노태옥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봉헌식에 참석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 공간이 단순한 여성 경영인 육성 차원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를 창출하는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화·신세계관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5,640㎡(4,730평) 규모로 무선LAN, 인터넷 정보통신망 등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한 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이다.

지하의 채광을 고려한 ㄷ자형 설계, 각종 각실별로 에너지 제어 가능한 냉난방 시설, 빗물을 이용한 중수 사용,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자체 발전 설비, 소음방지를 위한 독특한 창문설계 등 최신 친환경 공법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서윤석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에 독자건물이 생긴 것을 계기로 학생 창업률도 만들어 도전의식이 강한 미래의 여성 벤처 기업인을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효> <관련기사 6면>

윤후정 이사장, 서강대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한국의 대학교육 발전과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화 학당 윤후정 이사장이 9월 23일(금·오후 2시) 서강대학교(마태오관 9층 리셉션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총장 손병두)는 법학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그리고 여성지도자로서 우리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 해온 윤후정 이사장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 문학박사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오른쪽)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고 있는 윤후정 이사장.

윤후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기본권 연구에 헌신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시 성차별 제거를 위한 특별조항들을 입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교육자 및 교육행정가로서도

괄목할 업적을 쌓아, 지난 50년간 본교의 학장, 대학원장, 총장,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문여성교과 여성지도자 양성에 크게 공헌했다.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진 이때, 오늘의 위기를 미리 예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강조해온 윤 이사장의 통찰력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치하했다.

윤후정 이사장은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서강대의 동문이 되어 기쁘다”면서 “90년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21세기 문명 전환의 시대 를 맞아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 전문화’를 강조해 왔다. 대학은 이처럼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가치 창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사회의 동반자이자 독립적인 지식창출기관으로 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민>

이화학당 한옥교사(校舍) 상량식

“한국 근대 여성사가 담긴 공간으로”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법대앞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이화학당 한옥교사(校舍)의 상량식이 9월 30일(금·오후 3시), 가을비와 그윽한 나무향내 속에서 진행됐다.



상량식(上梁式)은 한옥을 지으면서 기둥에 대들보를 얹을 때 베풀어지는 의식으로, 신인령 총장은 “이화학당 한옥교사가 이화의 역사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전통적 격식을 갖춰 상량식을 갖게 됐다”며 “대들보를 올리는 것은 집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 그동안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옥교사의 복원을 맡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은 “일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힘있게 지켜온 이화학당을 복원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배용 이화역사관 관장 등 교내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상량식은 상량문 낭독, 상량 봉합(기원하는 내용을 한지에 적어 기둥에 넣고 봉하여 붙이는 것),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이화학당 한옥교사는 복원 후 3세기에 걸친 한국 근대 여성사가 담긴 역사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이화 명물로 등장할 전망이다.

사범대학에 국어교육과 신설 내년부터 30명씩 선발

본교 사범대학(학장 주영주 교수)에 2006학년도부터 입학정원 30명의 국어교육과가 신설된다.

사범대학 주영주 학장은 “국어교육과 신설은 사범대학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 “국어교육은 수학, 영어와 함께 우리나라 현 교육체제의 핵심 과목으로서 교사 임용의 수요가 매우 높고 진로 전망도 밝아 그간 신설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본교는 교원양성 90주년을 맞은 올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 국어교육과 신설을 요청했으며 10월 20일에 신설 승인 허가를 받았다. 올 정시 입시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사범대 국어교육과는 국어학, 국문학 및 교육학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 학문 탐구와 교육의 실천을 통해 우수한 국어 교사 양성에 나서게 된다.

현재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을 포함해 10개 학과, 15개 전공으로 구성된 본교 사범대학은 전국 사범대 평가에서 2회(1998년, 200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번 국어교육과 신설로 우리나라 교사 양성의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튼튼히 하게 됐다.

활성 산소 연구의 탁월한 업적 인정 받아

이서구 석좌교수, '디스커버리 상' 수상

분자 생명과학부의 이서구 석좌교수가 체내 활성 산소 연구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11월 6일, 국제 활성산소생물의학회(SFRBM)가 수여하는 '디스커버리 상'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1988년 퍼옥시레독신(Peroxiredoxin)이라는 새로운 항산화 효소를 발견하고, 활성산소의 생체내 신호전달 매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내는 등 체내 활성산소 분야의 국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수로서 NIH와 본교의 연구실을 오가며 본교 분자생명과학부의 창설 및 세포신호전달 연구센터의 설립을 주도했다.

'한국인 생명과학자중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정부나 타대학의 술한 초빙을 마다하고 이화를 선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의 거점을 NIH 연구실에서 본교로 완전히 옮기는 영구 귀국으로 학계에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활성산소는 퇴행성 뇌질환, 장염, 당뇨, 암 등 각종 난치병을 불러와 현대 생명과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주제로 꼽힌다"며 "본교 연구팀들과 함께 활성산소 관련 질환의 진단 시스템과 치료 신

약 개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30년이 넘게 체내 활성산소, 세포내 신호전달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온 그는 97년부터 본교 석좌교

수 연구진은 지난 5월 강성원 교수팀이 관련 논문을 네이처지에, 최근에는 이원재 교수팀이 사이언스지에 게재(기사 5면)하는 등 활성산소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산소화 효소' 연구의 최고 권위자 남원우 교수

'교내 석좌교수' 1호에 임용



본교가 올 2학기부터 교내 우수 전임 교원을 특별 지원하는 '교내 석좌교수' 제를 신설, 그 1호로 '산소화 효소'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남원우 교수(나노과학)를 임용(2005년 9월1일자)했다.

이화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 힘을 기울여온 본교는 세계적인 명성의 분자생명과학부 이서구 교수, 나노과학부 최진호 교수를 초빙 석좌교수로 영입한 바 있다.

교내 석좌교수 1호의 영예를 안게 된 남원우 교수는 94년부터 본교에 재직 해오며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집중시킨 성과를 잇달아 내 놓고 있다. 200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젊은과학자상, 2003년 대한화학회 무기분과상, 2004년 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2005년 제1회 이화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사업단을 이끌고 있다.

남 교수는 "11년 동안 힘든 연구 과정에서도 이화인들의 '슈퍼우먼 파워'로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며 "여성 과학도들의 입지가 많이 넓어진 만큼 이들이 학문적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1C 퓨전 테크노 과학계의 최전령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문 열어



원과제 중 본교를 포함한 과학연구센터(SRC) 5개, 공학연구센터(ERC) 4개가 선정되었다.

최진호 교수는 "나노·바이오 소재 분야는 보건, 의료, 환경산업의 중요 소재가 됨은 물론, 인류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기술로서 국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

력사업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본 센터가 세계 최고의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집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노·바이오 과학자 19명이 참여하는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는 '무기·바이오 의약 전달 나노소재', '생물질 센싱 유기·바이오 혼성 나노소재', '지능형 나노·바이오 복합소재'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SC(Science Citation Index) 우수논문은 물론 나노·바이오 소재 선도물질 30종 이상, 실용화 후보 물질 10종 이상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야심차게 설정했다.

본교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소장 최진호 석좌교수)가 10월 12일 종합과학관(B동 151호)에서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과학기술부 지정 '2005년도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된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는 앞으로 9년간 연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나노·바이오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주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 대학 연구집단이 국제 수준의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총 81개 지

프랑크푸르트를 빛낸 '메이드 인 이화' 의 책들 “이화의 학술·문화 역량 뽐내고 왔지요”

본교 출판부의 책들이 세계 최대 출판 축제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되어 이화의 축적된 학문적, 문화적 역량을 한껏 자랑하고 돌아왔다.

본교 출판부는 한국이 주변국으로 초대된 제57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아시아여성학교재, 국제학 시리즈 등의 영문 도서들과 올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출간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10종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출판부장 김용숙 교수(불문)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출판사들로부터 번역 및 저작권에 대해 많은 제의를 받았다”며 “대회기간 중(10월 19~23일)



생각지도 못했던 이화 동문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반가움을 나누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도서전 마지막 날에는 전시되었던 도서(63종 152권)를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 프랑크푸르트 문화회관, 베를린 한글학교, 주독일 해외홍보관, 하이델베르크 대학 동양학과, 슈트가르트 린덴 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와 학술 행사, 작가 소개, 문예 및 정치 관련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세계의 문화축제로서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학술소식 2題 ‘생명과학시대의 여성인권과 정책’ ‘로스쿨 교수법에 관한 심포지움’



‘생명과학시대의 여성인권과 정책’ 심포지움(사진)이 본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소장 장영민 교수)와 과학기자협회(회장 이기수) 공동주최로 10월 5일과 12일(오후 2시)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열려 법학, 윤리학, 의료, 언론, 정책 당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윤현수 교수(한양대 의대)가 난자제공의 절차, 제공자의 특성 등에 대해, 본교 김현철 교수(법학)가 생명과학연구와 난자기증의 규범에 대해 발제했으며 ‘체대혈 연구와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양윤선 매디포스트 대표이사, 본교 신승남 교수(법학)

가 발제를 맡았다. 김영석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김지영 여성생명과학포럼 회장, 이은정 경향신문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와 법과대학(학장 양명조 교수)은 11월 4일(오후 1시 30분)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로스쿨 교수법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로스쿨의 이상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연회 형식을 빌어 논의해 본 이번 심포지움에는 전국 50여개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로스쿨 도입의 의의와 교수법’ 등 기초강연에 이어 본교 법과대학의 오수근 교수, 최희경 교수, 김인호 교수의 교수법 시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평자로 참여한 동아일보 이수형 기자는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로스쿨 경쟁은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한국어 상담소 ‘국가 지정 국어상담소’로 선정

본교 한국어 상담소(소장 박창원 교수)가 9월 16일 문화관광부 소속 ‘국가 지정 국어상담소’로 선정되었다. 국어상담소는 올해 초 공포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교의 한국어 상담소를 포함해 전국 10곳이 지정되었다.

박창원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교양국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문장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범이나 어법 등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자료들을 마련해 왔던 것이 이번 선정에 주효했다”며 “앞으로 상담 뿐 아니라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국어의 국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문과 교수진으로 꾸려진 6명의 상담 연구위원과 박사과정의 상담 보조원 3명, 행정 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www.munjang.net)를 통해 말하기, 글쓰기, 우리말 자료실 등 국어 관련 정보 제공과 온라인 및 면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3277-4056)

장(臟)내 세균 증식 억제 효소 세계 최초 규명

분자생명과학부 이원재 교수 · 하은미 대학원생

생명체는 장(臟)내 세균 수가 많아지면 세균 증식 억제 효소(Duox, 듀옥스)를 이용해 활성 산소를 만들어 살균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본교 분자생명과학부 이원재 교수와 하은미 대학원생(박사과정)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이들의 논문 '장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활성산소의 생성 기전 및 역할(A Direct Role for Dual oxidase in Drosophila gut immunity)'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지 11월 4일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해 '사이언스' 지(인용지수: 32.853)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하은미 씨는 지난 1월에도 국제 과학학술지 '디벨롭먼트 셀' 지(인용지수: 15.434)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세계 과학계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원재 교수는 이번 논문 발표에 대해 "장 면역에 활성산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창의성이 돋보인 연구"라며 "그간 본교가 주도해 온 국내 연구진들의



하은미씨(왼쪽)와 이원재 교수.

활성산소 연구가 다시 한번 세계 과학계의 인정을 받은 셈"이라고 기뻐했다.

본교 분자생명과학부 연구진은 지난 5월에도 강상원 교수팀이 활성산소 관련 논문을 네이처 지에 게재하는 등 활성산소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면역학계에서는 이 효소의 발견으로 장내 만성 염증 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 조절 이상(異狀)'에 대한 기전이 밝혀짐으로써, 만성 염증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은미 씨는 "석사과정 때부터 험난하게 실험하며 연구해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교수님이 속도감있게 호흡을 맞춰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이 늘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사업(SRC)인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소장 이준승 교수)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소장 울프 네바스, Ulf Nehrbass)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화인 52명 제47회 사법시험(2차) 합격

제47회 사법시험(2차)에서 역대 최고 인원인 총 52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본교 합격인원의 증가 추세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로, 본교가 최근 불고 있는 사법시험 여성 강풍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0월 14일 발표된 합격자 중에는 법대 외 타과 출신이 10명, 재학생도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법학과 윤민숙(4년)씨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응시, 1·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본교가 지금까지 배출해 낸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208명(2004년도 기준)으로 이 중 53명이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올 1월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는 10명의 이화인이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 대에 이어 연세대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 외에도 법과대학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 법과대학은 1996년 법정대학에서 독립한 이래 1999년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법대 기숙사 숲을 운영해 왔다. 매학기 입실고사를 통해 선발된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과 함께 방학 특강, 모의고사 지도 등 고시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희경 사법고시실 지도교수는 "우리 학생들은 성실한 수험생활 태도와 꾸준한 노력면에서 매우 모범적"이라면서 올해 크게 늘어난 합격 인원으로 학생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돼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행정고시반 학생들

뉴스 클리핑 중앙일보

본교 행정학과 최근 3년간 행시 합격자 1위

본교 행정학과가 최근 3년간 전국 행정학과 중 가장 많은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두각, 최근 3년간 행시합격자 1위

(중략) 행정학과에서 가장 여풍을 실감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행정고시다. 2001년 25.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04년엔 여성 합격자 비율이 38.4%였다. 그 가운데서도 이화여대 행정학과가 두각을 나타낸다.

지난 3년(2002~04년) 동안 이화여대가 배출한 행시 합격자는 53명이고, 이 가운데 행정학과 출신이 29명이다. 단일 학과 합격자 수 29명은 전통적인 고시 명문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치다. 일부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약진을 여성할당제의 혜택으로 폄하한다. 하지만 한 성(性)이 최소 30%가 되도록 배려하는 양성평등채용제의 특성상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지금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화여대 이근주 교수는 "여성할당제로 우리 학생들이 고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학생은 없다"면서 "최근 이대의 고시 합격자 배출 급증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남다른 고시실 운영 노하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10월 5일자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서윤석 경영대학장에게 듣는다 / 경영대학 발전 청사진

“그릇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알차게 채워야죠”

최근 완공된 '이화·신세계관'에 입주를 마친 서윤석 경영대학장. 요즘 그의 발걸음이 부쩍 바빠졌다. 경영학과 창설 40여년 만에 독자건물을 보유하게 된 외관에 걸맞게 경영대학을 국내 최고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적 변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책임경영의 모델로

변화는 지난해 7월 경영대학이 '경영학 특성화 사업단'으로 지정될 때 이미 시작됐다. 일반 기업처럼 대학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권,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갖고 경영성과에 책임지는 '책임경영'을 도입한 것.

수익성 있는 비학위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그 수익을 다시 경영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환원하거나 구성원들에게 연구 성과 및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 학장은 "책임경영 실시 이후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수익성 높은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문의 경계 허물기

"21세기형 인재는 모든 분야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타 학문과 경영이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죠. 독주가 아닌 상생으로 미래형 인재양성이 가능해집니다."

경영대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자연대학, 공과대학과 연계하여 '과학기술경영 연계전공'을 신설했다. 경영마인드를 가진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경영대학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학사운영은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이 주관하고 있다. 학문과 학문, 대학과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첫 시도인 셈이다.

서 학장은 이밖에도 "우리학교의 강점을 살려 '종합예술경영', '보건경영', '엔터테인먼트경영' 등 다양한 조합으로 또 다른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는 꿈을 펼쳐보였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경영대학은 여학생이 선호하는 금융, 회계, e-비즈니스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열심이다.

3년 전부터 씨티그룹과 함께 '이화여대-씨티그룹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3, 4학년 전공학생들에게 금융이론 및 실무지식을 전수하고 있고, 올해 2학기부터는 여성 금융인 및 금융정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 금융관리자과정'도 신설했다. '여성 금융관리자과정'은 비학위 과정이지만 현장지식을 전수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소수의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CEO 겸임교수들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CEO와의 만남'을 기획, 학생들에게 여성리더로서의 꿈을 심어주고 있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프랑스의 IESEG 경영스쿨과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여 국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중이다.

편(fun) 경영

경영대학은 올해 특별한 상 하나를 만들었다. 한 한기에 한번씩 인사 잘하고 잘 웃는 교직원에게 시상하는 '매너상'이 바로 그것. 첫 수상의 영광은 김정권 교수(경영)가 안았다.

서 학장은 "비록 작은 상이지만 그 효과는 크다"면서 "매너상 제정 이후 경영대학 교수들 사이에 웃음꽃이 피곤 한다"고 전했다.

교수의 생일에는 다함께 조출한 생일파티도 벌인다. 매 격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에는 T.G.I.F (Thanks God! It's Friday) 행사를 열어 교수와 학생간의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도 마련했다.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부심과 결속력을 높이고 소속감 고취를 위해 편 경영을 도입한 것이다.

서윤석 학장은 "경영대학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들의 '행복'이다. 구성원들의 마음이 움직여 발전의 에너지가 생긴다"며 오늘도 행복 바 이러스 전파에 열심이다. <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영대학 프로그램들



“CEO와 함께 저녁식사를”

경영대학은 10월 26일 오후 7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국내 유명 기업의 CEO와 4학년 학생이 자리를 함께 하는 'CEO와의 만남'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세계 구학서 사장을 비롯, KK컨설팅 김국길 대표이사, 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욱 회장, 한국투자증권 홍성일 사장, PCA투자신탁운용 황성호 대표이사, 교보증권 최명주 사장 등 국내 최고의 스타 CEO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경영대에 개설한 '경영정책' 수업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CEO들. '경영정책'은 2004학년도 2학기부터 4학년을 대상

으로 개설된 CEO의 특별 수업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스승과 제자로 격의 없이 만난 이 자리에서 CEO들은 "꿈과 열정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있다"고 자신의 경영철학을 들려주면서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여성경영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 경제계의 별들이 다 모였다! ‘여성 금융관리자 과정’ 개설

경영대학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재정부, 금융감독원, 하나지주, 씨티은행과 함께 산·관·학 협동 프로그램인 '여성 금융관리자 과정' (9월 19일~12월 15일, 12주 과정)을 개설, 운영중이다.

서윤석 경영대학장을 비롯, 김석동 재정부 차관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조왕하 대한투자증권 사장, 박준 김&장 변호사 등 우리나라 금융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서 학장은 "금융 산업계의 여성 비율은 50%가 넘지만 관리자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며 젊은 여성금융인이 능력있는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경제이론과 선진 금융기법을 교육하고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여성 금융인, 금융정책 관련 공무원 외에 금융분야 진출을 원하는 소수의 학부 및 대학원생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음만은 한국인입니다”

판소리 사랑에 푹 빠진 국제학부 헤더 윌로비 교수



글로벌 이화의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외국인 교수들. 현재 이화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교수 37명중 한국인도 어려워하는 창(唱)을 즐겨 부른다는 국제학부·국제대학원의 헤더 윌로비(Heather A. Willoughby) 교수를 만났다.

미국 브링엄 영 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인류음악학과 인류학을 전공한 그가 한국, 그 중에서도 이화에 오게 된 배경이 궁금했다.

“1986년에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한국

문화와 음악에 푹 빠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찾다가 99년엔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아예 1년 동안 국립국악원을 다녔지요.”

김소희 명창의 제자 이주는 씨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난 후 다시 미국 대학(컬럼비아, 헌터, 브룩클린 대학 등)에서 음악을 가르쳤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2004년 9월, 본교 국제학부 교수가 된 그는 이화가 자신을 선택한 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학부엔 경제, 외교, 법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음악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하지만 국제학 전공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비교문화 강의를 듣는 것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사고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취미를 살려 교내에서도 음대생들의 소모임에서 음악사 공부를 돕고 있다는 헤더 교수는 이화인들을 한마디로 ‘매우 부지런한 노력파’라고 표현한다.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한명 한명의 경험이 매우 독특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니다.”

동료 교수들 역시 격의 없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비전공자로서 고맙고 편하다고. 여대는 처음이라는 그는 모든 것을 여성이 맡아 해야 하는 점은 큰 장점이며, 단지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설득하는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다.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판소리를 배우는 데만큼은 영원한 학생이라는 헤더 교수.

“가슴은 한국인인데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외국인이어서 더 많이 연습해야 해요. 14살짜리 한국아이보다 못 부른다고 느낄 때면 속도 많이 상하지요.”

하지만 판소리를 부를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할만큼 각별한 판소리 사랑 덕분에 그녀는 아리랑TV와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한국의 도자기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헤더 교수는 앞으로 이화를 통해 한국을 더 알게 되고, 또 자신을 통해 이화가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소망을 펼쳐보였다. <은>



이화인
이화in

약학대학 홍소연·서지용 씨의 특별한 동행

‘다른 얼굴, 닮은 눈빛...너도 내 운명’

“세트 메뉴 주세요.” 한 사람만 불러도 두 사람이 같이 온다. 약학대학 3학년 홍소연, 서지용 씨에게 제일 익숙한 단어는 ‘세트’. 두 사람도 자연스레 ‘따로 또 같이’ 쌍을 이룬 그 모양 그대로 닮아있다.

소연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발병한 골육종(암)으로 10여년간 병원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왔다. 타 대학에서 공학계열을 전공하다 진로 고민 끝에 홀로서기가 가능한 약대로 전공을 바꿨다.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동안 수술도 미룰 정도였다.

둘은 입학한 첫해 4월, 소연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수술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던 소연 씨가 수업 자료 제본 신청을 담당했던 지용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아프다는 말을 듣고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소연이가 스스럼없이 도움을 청했어요. 밝고 씩씩한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용 씨는 낮가림이 심하단다. 그 뒤로, 목발을 짚고 등교하는 소연 씨 옆에 자연스럽게 지용 씨가 따라붙었다.

3년 동안 두 사람의 수업시간표는 똑같았다. “분반 수업도 교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같이 들었어요. 한 명이 신청 못 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포기하기도 했죠.”



홍소연 씨(왼쪽)와 서지용 씨.

방학 때마다도 약대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늘 붙어 있었다. 도움을 주고받던 친구 사이에서 눈빛만으로도 속내를 알아 볼 수 있는 단짝이 된 두 사람만의 비결은 뭘까?

“친해지고 나서야 서로 성격이며 취향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됐죠. 늘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취향을 몰라줄 땐 정말 서운했어요. 그러다 서로 진실을 나누면서 각자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젠 정말 익숙해요.” 두 사람의 이구동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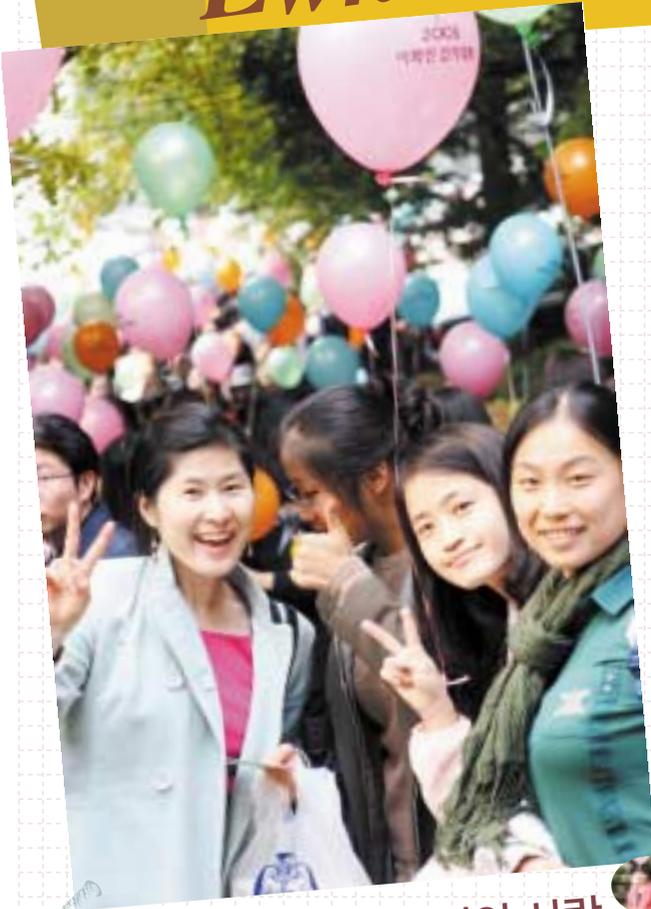
“지용이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태인지 알고 배려해 줘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뒷사람한테 밀릴까봐 제 뒤에 있어요. 제 밥도 약착 같이 챙겨주죠. 꼭 엄마처럼.”

“소연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몸이 불편하지만 큰 병을 극복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보다 생각이 깊어서 고민이 생기면 소연이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경쟁하듯 칭찬하는 둘에게 성적은 어떤지 물었다. “둘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부러워 한 적도 많았는데, 잘하는 과목은 달라도 학점이 같아요. 결국 도토리 키재기였죠. 이젠 맘 놓고 각자 알아서 공부해요.” <민>

Ewha Photo News

Ewha Photo News



A+ 주먹밥 먹고 4.3 사과주스 마시면?

물론 학점대박이다. 학생처는 10월 18~20일 중간고사 기간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A+ 주먹밥과 4.3사과주스를 나눠 주는 행사를 가졌다. 하루 500개씩 3일 동안 1500개가 제공됐는데 순식간에 동이나 이화인들의 소문난 먹성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실제로 이 간식을 먹은 학생들은 학점이 장난 아니라는 후문...



단풍보다 고운 이화인의 사랑

깊어가는 가을빛에 이화인의 이웃사랑도 무르익었다. 11월 2일,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으로 한걸음' 행사에 참가한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가을 향기 가득한 교정을 걸으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후원금은 연말에 서대문구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 미래 여성리더, 이화로 오세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EGPP) 설명회

입학처와 국제교육원은 10월 6일(오전 11시 30분 · 그랜드힐튼 호텔) 제3세계 30개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설명회를 열었다.

EGPP는 이화가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들을 전액장학생으로 선발, 이화의 교육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 및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창립 120주년이 되는 200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각국 실무진들은 자국 학생에게 유리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는 등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수학과 조용승 교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



수학과 조용승 교수가 11월 1일, 순수 기초학문인 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과학기술부 산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우리나라 산업, 금융, 경제 등 사회전반에 필요한 첨단 수리 과학 연구를 담당하게 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정부출연 연구소 중 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에 수학이 쓰여지지 않는 학문은 없음에도 그간에는 산업계, 금융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제각각 연구해 왔다”는 조 교수는 “이번 연구소 개소는 각 사업체와 연구기관이 함께 수학을 논하는 장이 펼쳐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학의 수학적 연구 역량을 산업계와 융

합시켜 IT, BT, NT 등 첨단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금융, 경제 등에 활용될 경제수학 분야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조 교수의 포부.

경북대와 미 시카고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89년부터 이화에 몸담아 온 그는 일생동안 오로지 수학 하나만을 연구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3~04년 대한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특수교육과 송준만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2006년도 판에 등재**



특수교육과 송준만 교수 한국 최초의 특수교육 박사로서 지난 30년간 불모지외도 같았던 특수교육영역 개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2006년도 제23판에 등재됐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미 미주리-컬럼비아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송 교수는 특수교사 양성에 앞장서 왔으며, '정신문화와 두뇌' 등 저서를 통해 두뇌 연구에도 힘써 왔다.

**수학과 이해숙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문위원 위촉**



수학과 이해숙 교수(WISE 거점센터 소장)가 10월 20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제9기 지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헌법 제127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동 정



이배용 교수(사학)
9월 29~30일 초대회장으로 있는 한국여성사학회의 광복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무총리실 광복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했으며 '광복 60년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와 의식변화'라는 주제로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김명 교수(보건교육)
9월 23~24일 양일 간 본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한국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국내외 보건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건강증진 사업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용길 교수(한국화)

10월 1~20일, 인사동 선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인 '오용길 작품전-서울'을 열었다. 철거된 청계 고가와 시청, 명동성당, 인왕산, 북아현동 고갯길 등 서울의 낮익은 풍경을 수묵담채로 담아냈다.



차영순 교수(섬유예술)

핀란드에서 Northern Fibre 6 / (wo)man & technology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7월 30일~8월 7일)에서 12개국 초대작가 22인 중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주제 발표했다. 본 행사에 참가했던 작품들로 Keravan Museum(8월 6일~9월 14일)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최경희 교수(과학교육)
대통령자문 제2기 교육혁신위원(2년 임기)으로 위촉되었다.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이끌고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임수 교수(경제)
10월 9~13일 베를린에서 열린 2005 한독 민주시민 교육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 및 정치 교육에서의 현 상황과 발전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민숙 교수(독문)

9월 3일,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열린 세계 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에서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조연순 교수(초등교육)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발전(교육과학사)을 출판했다. 이는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연구 결과물이다.



이종목 교수(화학)
7월 16~25일, 대만에서 열린 제 37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단 부단장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 학생 4명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이 국가별 종합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9월 5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Technical Training Course on Education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Mongolia에서 "Measure to Enhance the Quality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이라는 특강을 했다.

퇴 · 임 · 교 · 수 · 동 · 정



**모혜정 명예교수(물리)
여성과학자상 수상**

한국의 여성 물리학박사 1호로서, 국내 여성과학자의 대모로 불리는 모혜정 명예교수(물리)가 에너지 띠이론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11월 3일(목)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은 태평양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여성 과학자상으로 모 교수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봉순 전 교수(도서관학)
문화훈장 받아**

10월 15일,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전 교수는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및 도서관학회(현 문헌정보학회) 창설 등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주도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보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이화여자전문학교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1954~70년까지 본교 도서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부 음

이귀운 전 교수 별세

이귀운 전 교수(초등교육)가 10월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2년 간 본교 사범대 교육학과,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고인은 1988년 본교 부속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 이후 10여 년 동안 주 5일 수업과 '춘치 없는 학교', '자율 과제' 등을 도입해 이화초등학교를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생을 위한 '이화 리더십 캠프'

수시 1학기 합격자를 위한 '이화 리더십 캠프'가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 주최로 9월 1~2일, 용인 대웅경 영개발원에서 마련됐다. 예비이화인 187명이 참석한 리더십 캠프는 경력개발센터 원장 강혜련 교수의 특강 '나 이화인, 글로벌 리더', 재학생들의 생생한 체험을 공유하는 사례발표 '나의 대학 생활 준비기' 등으로 꾸며졌다. '토크쇼, 위풍당당 그녀들'에서



는 동문인 MBC 김은혜 기자(신문방송, 93년 졸)와 서현진 아나운서(무용, 03년 졸)가 여성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화인으로서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줘 큰 관심을 모았다.



입학 홍보 도우미와 모교 방문단 21명도 멘토로 참가, 대학 생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06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입학전형 실시

9월 15일 2006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918명 모집에 7,687명이 지원, 8.3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450명을 선발하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의 경우 4,053명이 지원하여 9.0:1을 기록했다. 약학과가

23.4: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초등교육과 18.0:1, 수학교육과 11.8:1로 그 뒤를 이었다. 200명을 선발하는 고교추천 특별전형은 2,198명이 지원하여 1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선발 인원을 확대한 외국어 우수자 특별

전형은 4.56:1, 미래과학자 특별전형은 5.16:1, 올해 신설 전형인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정원 외)은 3.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2학기 모집 전형은 9월 25일~10월 22일 논술고사 및 구술·면접고사 등을 거쳐 12월 21일 최종 합격자 발표로 마무리된다.

이화리더십개발원

'여성리더십과 시민참여민주주의' 워크숍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최선열 교수)은 10월 5~8일, 케이 J. 맥스웰 미국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을 초청해 '여성리더십과 시민참여민주주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NGO 관계자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NGO 리더십', '지역정치와 여성의 영향력', '시민교육과 연대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맥스웰 회장은 시민,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리더십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성 리더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조직원들의 요구와 관심분야를 파악해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원들과 함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참석자들은 맥스웰 회장의 강연에 대해 외국의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물관

출토 유물 전시부터 도예 특별전까지, 볼거리 가득한 전시 선보여



박물관(관장 오진경 교수)은 11월 4일~12월 16일, '한국대학 박물관 45년 발굴유물 연합전'을 개최한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40개 대학의 소장 유물 910여점이 출품되며 선사~통일신라시대는 연세대 박물관에서, 고려~조선시대는 본교 박물관에서 나누어 전시된다. 143개 유적지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발굴 역사와 장비도 함께 배치, 한국 고고학 발굴을 이끌어 온 대학 박물관의 발자취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본교 박물관 역시 직접 발굴한 소장 유물 8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10월 7일에는 제37회 특별전으로 한국의 대표적 도예가인 고 황종구 교수의 선각자적 삶을 회고한 '도예가의 길 - 도공, 과학자, 예술가 황종구' 전을 개막했다(전시는 12월20일까지). 황 교수는 전통도자를 계승해 청자재현에 성공한 한국 현대 도예가이며, 동시에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도예교육을 시작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오진경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 황종구 교수의 업적과 생애를 회고하고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평생교육원



ESCC 건립 기금과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대바자회

평생교육원(원장 이배용 교수)이 10월25일~27일 3일간 이화·삼성교육문화관대회의실에서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건립과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대바자회'를 개최하고 11월 1일, 수익금 중 1000만원을 대외협력처에 전달(사진)했다.

평생교육원 발전후원이사회(회장 문정숙)와 총학생회(회장 윤명숙) 주관 아래 20여명의 수강생들이 직접 나서 유명 의류, 식품, 각 지역 농·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평생교육원은 ESCC 건립 기금 외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인 수익금을 연말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05 우수홈페이지 사례발표회

기획처(처장 박통희 교수) 홍보과가 마련한 '2005 우수홈페이지 사례발표회'가 교내 62개 기관 90여명의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오후1시)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된 교내 154개 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이중 모범사례로 뽑힌 4개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관리 노하우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향숙 교수(수학전공)는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략, 홍종필 교수(언·홍·영)는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홈페이지 운영 노하우, 박지연 실장(국제대학원)은 외주 제작 업체와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김종순 관리자(체육과학대학)는 학교 제공 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홍보과와 정통처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운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승>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교육

산업자원부 지정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단장 김미경 교수)이 10월 29일, 이화·SK텔레콤관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전문적 이해와 업계 동향'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교육(기초)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직종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CJ, 동원F&B, 대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건강식품 담당자와의 상담이 진행됐다. 사업단은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추후 사업단 홈페이지 내 인재뱅크에 등록된 지원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362-0837)

2005년도 후기 직원교육 대상자 선정

총무처(처장 양혜순 교수) 인사과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원 교육 대상자를 발표했다.

본교 이화리더십개발원의 기업여성리더십과정에는 한혜선(학적과), 정화경(정보시스템관리과), 정경희(과학기술대학원/공과대학)씨가, 경영대학원의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에는 이혜선(사회봉사센터)씨가, 본교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 아카데미의 Action e-MBA 기본과정에는 이정희(국제대학원), 김윤아(의과대학)씨가, 심화과정에는 홍승렬(경력개발센터)씨가 참가하게 되었다.

2005년 후기 직원 인사발령 (2005년 10월 1일자)

소 속	성 명	직 위	발령 사항
사회복지/정보과학/정책과학대학원	손중수	사무직원(과장)	명: 정보과학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 겸직 해제
입학과	유일선	사무직원(과장)	명: 정보과학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
학생복지센터	이난희	사무직원(주임)	면: 주임(2005.9.30) 보: 과장 명: 대외협력과
입학과	신효숙	사무직원(주임)	면: 주임(2005.9.30) 보: 과장
시설과	남석진	사무직원(주임)	보: 주임 겸 과장 직무대리
구매과	조혜순	사무직원(주임)	명: 학생복지센터
대외협력과	명옥희	사무직원(주임)	명: 교무과
사회과학대학	신현식	사무직원	보: 주임 명: 학적과
학적과	임정임	사무직원	보: 주임 명: 구매과
교무과	한현숙	사무직원	명: 경영대학
기획과	정희정	사무직원	명: 사회과학대학
관재과	김태희	사무직원	명: 연구과/산학협력과
연구과/산학협력과	우소정	사무직원	명: 기획과
경력개발센터	장지현	사무직원	명: 교무과
예산과	김양희	사무직원	명: 이화리더십개발원(2005.10.10)
신임	이선연	사무직원	명: 교무과
신임	김윤미	사무직원	명: 관재과
신임	도정민	사무직원	명: 회계과/산학협력과
신임	김선정	사무직원	명: 예산과(2005.10.10)
신임	채혜진	사무직원	명: 교무과(2005.11.1)

신임 직원



김선정

김윤미

도정민

이선연

채혜진



자연의 품에서 10월 8일 북한산에서 열린 '이화가족 등산대회'에 300여명의 교직원 및 가족들이 참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함께 즐겼다.



'1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1월 4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위원장 유중실)이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모범조합원 시상, 조합원 탁구대회 결승전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노조 산하 독서 동아리 '파피루스'가 조합의 17번째 생일을 자축하며 만든 인간케이크.

물의 요정을 찾아서

최민숙, 이은화, 윤현자, 김미선, 송소민 지음

스타벅스 로고 속 여인은 누구를 본든 것일까? 인어공주는 정말 안데르센이 창작한 인물일까? '물의 요정을 찾아서'는 유럽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물의 요정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해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문화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세이렌, 로렐라이와 같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외에 멜루지네, 운디네, 세르펜티나, 라우, 라우텐멜라인과 같이 서구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긴 문학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사적으로 고찰하여 그 문화적 의미와 깊이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2만원>

여성을 위한 디자인

이영희 지음

이 책은 여성학 서적도, 사회학 서적도 아닌 디자인 서적이다. 오늘날 전 시대적 경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디자인 패러다임에 대한 사유와 그 사회·문화 코드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국내외 사진 자료와 함께 엮은 이 책에서 저자는 여성성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살피는 것이며 나아가 오늘날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 남성,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2만2천원>

떨리듯 와서 뜨겁게 타다 재가 된 노래 : 중국 현대 애정시 선집

이종진, 정성은, 이경하 엮음

'사랑'을 노래한 중국의 현대시 중에서 명편(名篇)으로 알려진 시 60수를 모았다. 시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시마다 해설을 싣고 낭송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문과 '한어 병음자모'를 곁들였다. 전체 시를 연대기별로 나누어 애정시가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다 쉽게 조감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타이완의 애정시에도 지면을 할애하여 타이완 시의 경향을 엿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1만원>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 리더십

조형 엮음

이 책은 이화리더십개발원이 본교의 여성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여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첫 번째 결실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판될 '여성 리더십' 시리즈의 첫 권이기도 하다. 리더십을 여성



출판부 소식

영문 10종 발간을 기념해 10월 10~31일까지 교보문고 외서 파트에서 이벤트 행사를 열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나 'A Korean Mother's Cooking Notes' 세 권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목가구 Planner & Note' 1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여성주의적 개념과 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학문적 사명감에서 출발한 이 책을 통하여 조직과 사회의 구조와 규범,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진정한 여성 리더들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8천원>

빛과 소망의 숨결을 찾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70년사

양현혜 지음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본교 대학교회의 발자취를 담았다. 이 책은 대학교회사를 서술함에 있어 한국 근현대사와 대학교회의 유기적 연관성, 한국 기독교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또한 본교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캠퍼스 교회로서 본교 역사와의 밀접한 관계도 고려했다. 독자들에게 본교 대학교회의 전반적 역사와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한국 기독교사 및 본교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만5천원>

Training by Small and Medium-Scale Enterprises in the Knowledge Economy: A Case Study of Korea

이계우 지음

이 책은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스스로 직업훈련과 인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수많은 인력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사용해온 한국 정부를 사례연구의 한 표본으로 선택하여, 한국경제와 기업 및 인력개발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1만2천원, \$ 15.00>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한국의 전통 교육

최완기 지음

서당과 향교, 서원과 성균관 등 한국의 전통 교육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책이다. 인간의 사회적·역사적 역할의 각성, 윤리와 명분과 덕행의 강조에 주력했던 향교와 서원의 교육 방침은 현 시대의 교육 현실을 반성해보는 유용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만2천원>

한국의 풍속 민간 신앙

최준식 지음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무교(巫敎), 제사로 대표되는 가(家) 신앙, 동제로 대표되는 마을 신앙을 통해 한국의 민간 신앙을 살펴본 책이다. 다른 민속학 개론서처럼 설명이 과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 신앙들이 현재에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만2천원>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출신 42명 합격

금융감독원이 9월 8일 발표한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총 42명의 이화인이 최종 합격했다. 본교는 합격자 출신대학 중 전체 7위이며, 합격자 중 경영학 주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이화 출신 회계사는 총 24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전체합격자의 27.9%가 여성으로, 2003년 21.6%, 2004년 24.1% 등 해마다 여성 합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화회계사회(회장 서지희)는 9월 21일 홈커뮤니티(사진)를 개최하고 삼정KPMG



조민식 상무의 특강 및 신입회원과 각계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합격자 명단

강민경(독문, 02년 졸) 권오현(경제, 4년 재학) 권재희(중문, 05년 졸) 김숙경(경영, 05년 졸) 김연미(경영, 00년 졸) 김연정(경영, 4년 재학) 김연주(경제, 98년 졸) 김은진(통계, 4년 재학) 김정은(경제, 4년 재학) 김하령(물리, 03년 졸) 김현효(경제, 04년 졸) 박소영(경영, 05년 졸) 박정렬(경제, 05년 졸) 변성현(통계, 04년 졸) 서수정(경영, 04년 졸) 신명애(경제, 05년 졸) 신수민(경영, 4년 재학) 신현주(문헌정보, 01년 졸) 오미영(간호, 00년 졸) 유은선(경영, 03년 졸) 유진선(비서, 4년 재학) 이서진(심리, 05년 졸) 이선혜(경영, 4년 재학) 이정민(경제, 4년 재학) 이지영(비서, 4년 재학) 이지은(경영, 04년 졸) 이현정(통계, 4년 재학) 임상미(경제, 4년 재학) 임지현(경영, 05년 졸) 임지혜(물리, 99년 졸) 장혜실(경영, 05년 졸) 전주희(의직, 4년 재학) 정지원(경제, 05년 졸) 채정련(경영, 03년 졸) 최선영(경영, 4년 재학) 최선희(불문, 03년 졸) 최유빈(경영, 3년 재학) 최현애(경제, 4년 재학) 한정미(경영, 04년 졸) 허유진(경영, 05년 졸) 황경아(경영, 4년 재학) 황성임(통계, 01년 졸)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화인 5명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월 7일 발표한 제1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화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로써 본교 출신 공인노무사는 올 합격자를 포함해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의 중간자 입장에서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노사공영 체제 확립을 돕는 노동관계 전문가다. 손향미(법학, 96년 졸) 동문이 제6회 시험에서 최연소 수석합격을 한 바 있으며, 올 합격자인 박경옥(법학, 83년 졸) 동문은 본교 교직원(관재과)으로 근무하는 중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은 제14회 합격자 명단.

박경옥(법학, 83년 졸), 최윤선(사회사업, 93년 졸), 한문형(식품영양, 98년 졸), 정희진(경제, 02년 졸), 박세은(법학, 04년 졸)

문희 동문(약학, 59년 졸)



10월 13일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41번째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것. 대한 약사회 총회 부의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여성지도자연합 부총리를 맡고 있다.

김숙자 동문(비서, 80년 졸)



10월 6일 라마다 서울 호텔 여성 총 지배인으로 영입됨으로써 국내 특급호텔 첫 여성지배인이 되었다. 1983년 서울 하얏트 호텔에 입사,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외국인 남성 이 대부분인 국내 특급 호텔에서 이례적으로 총지배인 자리에 올랐다.

장명수 동문(신방, 64년 졸)



대한 YWCA가 주최한 제3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기명 칼럼을 시작한 최초의 여기자로서 여성 최초로 언론사 사장을 역임했고 언론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여성 지도력 신장에 공헌 해왔다. 현재 한국일보 이사로 '장명수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동문 동정



곽상진 동문(법학, 78년 졸)



10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입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 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건교부 중앙토지구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옥 동문(사회, 69년 졸)



9월 18~24일 열린 제 28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싱가포르)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3대 정책위원회 중 하나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18개 ISO 이사국 만장일치로 2006년부터 2년 임기의 의장직을 맡는다.

권지에 동문(영문, 83년 졸)



소설집 '꽃계무덤'으로 제 26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강화도에서 꽃계당을 먹으며 영감을 얻었다는 권 동문은 첫 소설집 이후 4년 만에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2년에는 '뽕장어 스투'로 이상문학상도 받았다.

김의정 동문(성약, 61년 졸)



불교 조계종 역사상 첫 여성 신도회장으로 추대되었다. 9월 24일 열린 조계종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3대 통합 회장에 선출됐다. 김 동문은 2001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명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민병주 동문(물리, 81년 졸)



9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0차 세계원자력협회(WNA) 연차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민 동문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첫 여성 간부이기도 하며 WNA 공로상은 200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혜은(사회생활, 74년 졸)



10월 17~21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5차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자문기관)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동문은 향후 세계 유산 등재 여부 심의,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풍성한 가을, 따뜻한 '이화사랑' 이어져



5000만원 장학금 기탁한 남덕우 교수(왼쪽에서 6번째)와 제자들.

스승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만든 장학금

성악과 남덕우 교수(성악 67년졸)와 제자 30여 명이 9월 10일 영산아트홀에서 '장학금 마련 음악회'를 열고 그 수익금과 십시일반 모은 기금 5000만원을 '남덕우 장학금'으로 기탁해왔다.

"선생님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3~4개월 전부터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음악회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참여했고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무대에 올랐던 권혜영 동문(성악 79년졸)이 밝힌 기탁 배경이다.

이효진 동문(성악 90년졸)은 "이화 안에서 학교

와 제자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발자취를 다 시금 생각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음악회의 연주 곡도 남 교수의 연구 분야인 가곡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학금은 남 교수가 현재 급여공제 중인 5000만원의 장학금이 모두 완납되면 총 1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2010년 2학기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악과 3, 4학년 재학생 중 일부에게 매학기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 교수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장학금 기탁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제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숙 교수 5000만원 장학금 조성

조계숙 교수(비서학, 비서 73년졸)가 9월 30일 5000만원의 장학금을 완납했다. 이 장학금은 대여자학금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 후 자신의 장학금을 다시 기부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지급되어 온 이 장학금은 지금까지 2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2004년 2학기에 장학금 190만원을 받았던 이은영 동문(비서 05년졸)은 올해 6월 200만원의 장학금을 본교에 기탁했다. 이처럼 재학 시절 받았던 장학금을 졸업 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익혀가는 교육적인 효과도 겸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앞으로도 조계숙장학금은 비서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수혜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들을 위해 다시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인닷컴 장학금 지급

본교 창창포탈사이트 이화인닷컴(www.ewhain.net)에서 2003년부터 전개해온 E-PRO(2%)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 두 번째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용돈의 2%, 사랑의 2%로 어려운 후배를 돕자는 이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장학금 100만원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할 것이다. 2004년 2학기에 첫 수혜자가 나온 후, 1년 만에 모인 장학금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이화인닷컴을 통해 장학금을 모아준 선후배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5.8.12~2005.10.31)

국어국문 김경희(72년졸) 20만원, 김상희(72년졸) 20만원, 김숙경(72년졸) 20만원, 김순진(72년졸) 20만원, 김용희(72년졸) 40만원, 김정희(72년졸) 20만원, 김혜영(72년졸) 20만원, 박정애(72년졸) 20만원, 박종실(72년졸) 20만원, 서영주(72년졸) 20만원, 석연숙(72년졸) 20만원, 성혜란(72년졸) 20만원, 손경숙(72년졸) 20만원, 손은경(72년졸) 20만원, 오형숙(72년졸) 20만원, 윤연재(72년졸) 20만원, 윤평희(72년졸) 20만원, 이순연(72년졸) 20만원, 이양혜(72년졸) 20만원, 이영옥(72년졸) 20만원, 임덕기(72년졸) 20만원, 최미경(72년졸) 20만원, 한정숙(72년졸) 20만원, 한정희(72년졸) 20만원, **영어영문** 배영옥(71년졸) 50만원, 유혜근(71년졸) 50만원, 김경희(72년졸) 100만원, 이승신(72년졸) 100만원, 이정숙(77년졸) 100만원, 안미숙(84년졸) 1000만원, **불어불문** 불어불문학과 7기(67년졸) 100만원, 불어불문학과 8기(68년졸) 300만원, 불어불문학과 9기(69년졸) 100만원, 불어불문학과 12기(72년졸) 100만원, 불어불문학과 14기(74년졸) 100만원, 불어불문학과 18기(78년졸) 100만원, 김영화(61년졸) 100만원, **독어독문** 김영미(72년졸) 300만원, **기독교** 기독교학과 8기(69년졸) 100만원, 임안숙(70년졸) 300만원, **사학** 사학과 47기(61년졸) 200만원, **정치외교** 정치외교학과 34기(87년졸) 100만원, 정완희(57년졸) 100만원, 함정배(72년졸) \$3,000, **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8기(70년졸)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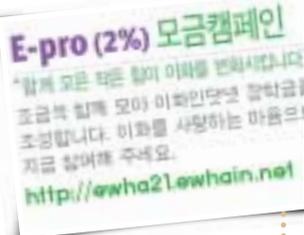
만원, 송영숙(70년졸) 300만원, 송근호(73년졸) 100만원, **언론홍보영상** 장문선(96년졸) 30만원, **사회** 사회학과 11기(72년졸) 200만원, 고영옥(70년졸) 50만원, 김경희(70년졸) 30만원, 김명숙(70년졸) 20만원, 김정애(70년졸) 10만원, 김혜경(70년졸) 10만원, 김희옥(70년졸) 20만원, 나신혜(70년졸) 20만원, 민순기(70년졸) 50만원, 박준호(70년졸) 50만원, 백운숙(70년졸) 20만원, 신동임(70년졸) 20만원, 신정애(70년졸) 10만원, 이미영(70년졸) 20만원, 이영선(70년졸) 20만원, 이외수(70년졸) 20만원, 이현숙(70년졸) 20만원, 이혜정(70년졸) 20만원, 조영순(70년졸) 20만원, 조인숙(70년졸) 50만원, 조임숙(70년졸) 20만원, 최진선(70년졸) 20만원, 홍은진(70년졸) 20만원, 구순애(71년졸) 50만원, 김영남(71년졸) 25만원, 김일송(71년졸) 25만원, 문영희(71년졸) 25만원, 박성희(71년졸) 25만원, 박재영(71년졸) 25만원, 안명숙(71년졸) 25만원, 이근원(71년졸) 125만원, 이춘희(71년졸) 25만원, 전영옥(71년졸) 25만원, 조희경(71년졸) 25만원, 지경희(71년졸) 25만원, 허필연(71년졸) 25만원, 한정혜(71년졸) 25만원, 함희순(71년졸) 25만원, 강득희(72년졸) 100만원, 신정범(72년졸) 50만원, 오성숙(76년졸) 30만원, **생물** 노분조(58년졸) 300만원, 이은정(73년졸) 50만원, 장인숙(73년졸) 50만원, **체육** 조선영(80년졸) 100만원, **법학** 송영숙(85년졸) 300만원, 최정숙(90년졸) 1000만원, 김중숙(93년졸) 500만원

경영학 김성주(69년졸) 100만원, 김갑귀(71년졸) 50만원, 박연주(72년졸) 20만원, 성진란(72년졸) 20만원, 김성희(76년졸) 10만원, 김연자(76년졸) 20만원, 김진란(76년졸) 50만원, 박금순(76년졸) 50만원, 안영익(76년졸) 10만원, 이영화(76년졸) 500만원, 이원순(76년졸) 20만원, **약학** 약학과 5기(54년졸) 300만원, 약학대학 14회(63년졸) 500만원, 약학대학 19기(68년졸) 500만원, 약학과 23회(72년졸) 200만원, 김정희(Chung Hi Kim)(54년졸) \$1,000, 전한옥(60년졸) 100만원, **소비자간발달학** 김영자(Young Ja Kim Hong)(68년졸) \$300, **EMTOP** EMTOP총동문회 1000만원, **이영희** 박연자(이영희 51기) 1000만원, 권영현(이영희 52기, 법학 61년졸) 3000만원, 박용순(이영희 52기) 600만원, **교직원** 구분관(국어국문학전공) 200만원, 김현자(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66년졸) 1000만원, 김현숙(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69년졸) 300만원, 전혜영(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79년졸) 300만원, 김미현(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84년졸) 300만원, 정우숙(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87년졸) 300만원, 이해영(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 88년졸) 300만원, 김용숙(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 70년졸) 300만원, 이수미(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 79년졸) 300만원, 송기정(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 80년졸) 300만원, 함민주(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 83년졸) 300만원, 장인봉(불어불문학전공,

마음을 전했다. 대외협력처는 앞으로도 E-PRO(2%)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화인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화인닷컴 장학금을 위한 E-PRO(2%) 모금 참여 방법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http://ewha21.ewhain.net>)의 E-PRO(2%) 모금캠페인 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를 클릭하면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다. 모금에 참여하면,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장학금 소식

문헌정보학과 남윤숙 동문(문헌정보 74년졸)과 손영신 동문(문헌정보 75년졸)이 문헌정보학동창회장학금으로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물리학과 동창회는 물리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2807만2397원을 기탁하여 현재 물리학과 동창회 장학금 적립금은 총 5000만원이 됐다.

본교 화학전공 이희승 학생은 입학때부터 자신이 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계속 기탁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18만5000원을 기탁했다.

의학과 이희승 교수(의학과, 의학 95년졸)가 의

대생들을 위해 1000만원을 약정했다.

경영대학의 김재철, 박광서 CEO 겸임교수가 각 30만원의 강사비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그밖에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오는 기부자들의 2005학년도 2학기 장학금 기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중근(영어영문 67년졸) 300만원, 이명경(무용 77년졸) 200만원, 추선희(이영회 71기) 308만5000원, 김정희(패션디자인연구소) 150만원, 대학교회 300만원, 신원(범양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 467만9000원, 한상준(주)금성제어기대표) 300만원, 한영재(삼양화학공업(주) 회장) 1200만원, 아현감리교회 100만원, 일곡문화재단 300만원, 자영메디칼 100만원, ICSF(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5,000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 현황

(약정기간 : 2005.8.12~2005.10.31)

사대교육관건축기금 모금

조차영(교육 60년졸) 100만원, 김경수(교육 81년졸) 100만원, 김병수(교육 81년졸) 300만원, 최정희(교육 92년졸) 300만원, 조을순(초등교육 75년졸) 100만원, 조경숙(교육공학 69년졸) 50만원, 민덕유(Dukyoo Min Kim)(교육공학 83년졸) \$2,000, 조수진(특수교육 96년졸) 100만원, 영어교육과 8기(75년졸) 100만원, 신상근(영어교육과) 200만원, 이영민(사회생활학과) 100만원

의료원발전기금 모금

조흥은행 3억원 발전기금 약정

조흥은행이 이화 의료원 발전을 위해 3억원의 기금을 약정했다. 8월 23일 목동병원 의료원장실에서 진행된 약정식에는 조흥은행 문창성 부행장, 심용하 특수고객지원부장, 한정순 지점장과 본교 의료원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서현숙 이대목동병원장, 김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조흥은행 측은 최첨단 의료원으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날 1억원을 기탁하고 향후 3년간 총 3억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의학관B동기도실기금 모금

총동창회선교부 100만원, 주금란(약학 64년졸) 100만원, 방채임(의류직물 69년졸) 100만원, 성혜옥(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박은영(의학 94년졸) 100만원, 변재일(학부형) 500만원, 안희정(학부형) 100만원

외과대학속사신축기금 모금

정지형(의학과, 의학 94년졸) 10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모금

김세연(학부형) 1000만원

간호과학관건축기금 모금

이명숙(Myung Sook Joo)(간호 71년졸) \$120, 오경현(간호 75년졸) 300만원, 김은정(간호 93년졸) 5만원, 기어은(간호 99년졸) 5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모금

홍경숙치과의원 200만원, (주)제일메디칼 200만원

국제하기대학후원금 모금

워싱턴 동창회 \$1,180

불어불문 85년졸) 300만원, 이상용(문헌정보학전공) 200만원, 송준임(생명과학전공, 생물 71년졸) 100만원, 최금숙(법학과, 법학 73년졸) 300만원, 정현미(법학과, 법학 82년졸) 500만원, 최희경(법학과, 법학 90년졸) 500만원, 김진호(경영학전공) 180만원, 김춘미(약학과, 약학 66년졸) 1000만원, 김봉원(인문과학대학 행정실, 사학 76년졸) 200만원, 정락춘(중앙도서관 정보처리과, 문헌정보 71년졸) 300만원, 정화경(정보통신처 정보시스템관리과, 수학 80년졸) 200만원, 이재창(정보통신처 정보시스템개발과, 수학 79년졸) 300만원, 한혜선(교무처 학적과, 생물 78년졸) 100만원

바로 잡습니다.

이화소식 71호에 실린 이화상생캠퍼스센터(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정치외교 이창임(58년졸) 1000만원, 도원숙(75년졸) 30만원, 유영숙(75년졸) 30만원, 이명숙(75년졸) 20만원 **사회** 김덕신(66년졸) 20만원, 서애자(66년졸) 20만원, 유혜향(66년졸) 10만원, 윤청자(66년졸) 20만원, 이미형(66년졸) 50만원, 장미자(66년졸) 10만원, 정행재(66년졸) 50만원, 양옥남(67년졸) 100만원, 윤영근(72년졸) 100만원, 장하진(73년졸) 1000만원 **생물** 박경숙(70년졸) 100만원, 오현주(85년졸) 5만원 **약학** 약학대학 18회 500만원 **이영회** 장정재(이영회 71기) 300만원

열정의 리듬으로 하나 된 'The Bar 부에나 비스타' 공연

대외협력처(처장 황혜진 교수)는 10월 1~3일, 발전기금 모금 공연으로 'The Bar 부에나 비스타(The Bar at Buena Vista)'를 총 5회에 걸쳐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The Bar 부에나 비스타' 세계 투어 공연은 쿠바의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과 룸바, 맘보, 차차차, 살사 등 20세기를 풍미한 쿠바 음악들을 선사하는 쇼 뮤지컬이다. 이번 한국 공연은 후주의 뮤지컬 프로듀서인 토비 가프가 제작, 2시간 30분 동안 쿠바 음악인들의 열정과 로맨스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화려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본 공연을 통해 공연기획사인 (주)크레디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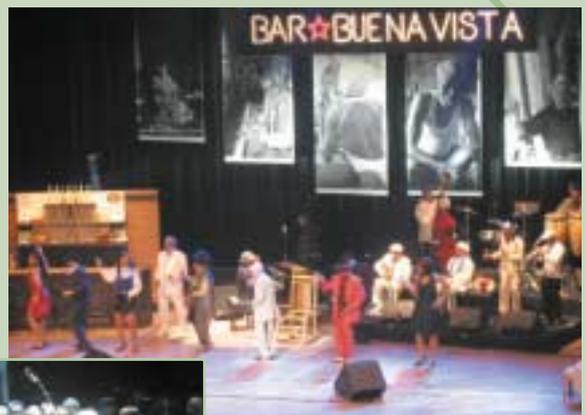


표 정재옥)의 기부금과 수익금으로 총 50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발전기금 모금 콘서트는 이화가족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공연도 즐기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외협력처는 올 연말연시를 맞아 또 다른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인터넷 진료의뢰시스템 구축 온라인 '리퍼(Refer)시스템' 으로 빠른 회신 가능

이화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이 9월 8일(오후 2시)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진료의뢰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인터넷 진료 시대를 열었다. 1차 및 2차 의료기관이 본 의료원으로 의뢰한 환자에 대한 정보와 진료소견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 및 협력병원간의 원활한 협진체계구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본원의 의료진들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료중인 환자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외부출장지에서도 환자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박시훈 전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연회에는 7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리퍼(Refer)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진료협력시스템에 부응하는 활발한 진료협력의 장을 열어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의료원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역 및 협력병원의과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료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성인지의학회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서현숙 목동병원장

9월 8일(오후 5시) 의과대학 의학관 B동에서 한국성인지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Gender Specific Medicine) 창립총회(사진)가 열렸다. 성인지의학은 기존의 남성 일반인 위주의 의학 연구와 진료를 탈피,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gender difference)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양성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그 중요



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창립총회

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서현숙 목동병원장은 "국내에는 생소한 학문이지만 그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번에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다"며 "본격적인 연구와 학문 교류를 통해 성인지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초석을 다지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성인지의학의 창시자인 미국 컬럼비아 의대의 메리앤 리가토(Dr.Marianne J. Legato)박사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목동병원 소식

뇌졸중 집중치료실 및 간질집중센터(EMU) 개소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간질집중센터(비디오뇌파 및 수면다원검사실)이 10월 10일(오후 4시) 본관 8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 및 뇌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고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의료전문인이 한 팀을 구성, 신속하고 체계화된 진료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간질집중센터는 경련환자의 정확한 진단 뿐 아니라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간질환자들에게 수술 전 검사로 간질수술을 위한 발작병소 국소화 및 뇌기능검사를 시행해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치료를 펼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실에서는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장애의 정확한 진단으로 수면장애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성형외과 외래 새 단장

편안한 진료대기실 갖추고 원스탑 진료 선보여



성형외과 외래 진료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9월 14일(오후 12시 30분), 개소식을 가졌다. 방문객 편의를 강화한 성형외과 외래는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대기실과 진료실을 배치했으며, 수술과 치료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탑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수술! 이렇게 진행돼요'

외과병동팀, 수술 관련된 안내 동영상 제작

외과계 병원팀이 수술 전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동영상 '수술! 이렇게 진행돼요'를 제작, 무료 배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70여명의 의료진들이 6개월에 걸쳐 무료 봉사로 참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실제 환자와 의료진이 출연해 일반인들이 수술 전반의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2년간 시나리오 전문학원을 다닐 정도로 열의를 보인 이정화 간호과장은 "앞으로 워나 간 수술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수술과정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계속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은 간호부 홈페이지(nursing.eumc.or.kr)에서 볼 수 있다.

동대문병원 소식

핵의학실 장비가동식 가져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 핵의학실이 9월13일 최첨단 장비인 감마-스펙트의 장비 가동식을

가졌다. 동대문병원은 이 장비의 도입으로 심근경색증이나 관상동맥질환 등의 질병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핵의학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가동식에는 참석한 병원 내외빈들에게 감마-스펙트 장비의 사용 및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동정

산부인과 주임 교수 '젊은 산부인과 의사상' 수상



10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에서 '젊은 산부인과 의사상'을 수상했다. '한국 여성의 상피성 난소암과 기질금속단백 분해효소와의 연관성'이라는 내용의 연구로 동서양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암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한국인의 특수성에 맞는 치료와 예방에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